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나에게겐 엄청나고 힘든 일입니다

“참, 그 친구, 비지런해?”
“그래, 젊은 친구가 말이야, 앞으로 한지리하겠어? 그것에 비하면 우리 너무 노탈인가?”
“반성해야지, 세상 살기가 어디 그리 쉬운감, 일하러 가세!”
“그렇게……”



박여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저, 저 인간, 대단해, 암튼 대단해, 어쩔, 저렇게 철판을 깔고 비지런하게 손님을 대한다나?”
“공개, 징하면, 징허, 그리고선 우리 앞에선 맨날 우거지 싱어? 죽겠다고만 허구?”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짧은 대화다. 대화의 핵심은 신입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 ‘비지런하다’라는 것이다. 형용사 ‘비지런하다’ ‘비지런하다’라는 ‘놀지 아니하고 하는 일에 꾸준하다’라는 뜻풀이다. ‘비지런하다’라는 의미로 ‘바즈런하다’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비지런하다’만 표준어로 삼고 있다.

키가 자그맣고 비지런한 주인이주머니, 그 아주머니는 바로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며 누이이자 여동생이다. 그녀는 많은 손님의 이런저런 주문으로 짜증이 나고, 몸이 무거워도, 늘 싱글빙글 웃으며 꾸준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어디, 이런 비지런한 친구, ‘비지런한 아주머니’, ‘비지런한 누이’, ‘비지런한 여동생’이 그녀들뿐이겠는가? 주변을 차분하게 에둘러 돌아다 보았는가? 하늘 한 번 울려다보고,

긴 한숨 몰아, 두 눈 부릅뜨고, 과거 보단 현재와 미래를 위해 비지런하게 살아가는 민초들을 ‘공감’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는가? 주변으로 잠시만, 눈을 돌려보자. 참 비지런한 사람이 많다. 같이 일을 하면서도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은 참 비지런하다. 비지런하다 못해 믿음의 가고, 무엇인가 손길을 보태고 싶은 이가 있다. 아래 문장에서 만나보자.

쉬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건 나에게 엄청 힘든 일입니다
당신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멋들어지게요
나날이 멋들어지고 있는
당신을 사랑하는
나는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 知菴 최00 (기탁) 전문-

언제가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知菴)에게서 날아온 ‘기탁’이다. 요즘 자신의 삶을 낮두리처럼 전해 준 몇 줄 안 되는 문장은 ‘쉬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건 나에게 엄청 힘든 일입니다’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음 문장은 ‘당신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멋들어지게요’에서 잠시 호흡을 멈춘다. 그리고 이어서 ‘나날이 멋들어지고 있는 당신을 사랑하는 나는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로 한 편의 시를 완성한다.

산문체의 짧은 문장이다. 그렇지만, 많은 생각이 어지럽게 뇌를 휘감기에는 충분하다. 힘표도, 느낌표도, 물음표도, 마침표 같은 형식이 필요 없는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 그 소리를 <카복>이라는 매체를 통해 글로 옮겼을 知菴의 마음이 따사하게 다가왔다. 그에게 나는 답장을 보낸다.

당신의 생각 울타리는 꼭지, 꼭지 소중한 공감만땅
이웃집 아저씨 같은 너털웃음으로
그 뭔가를 위해 달려가는 당신의 바지런함에 반해버린다. 그리고 변함없이 흐르는 실개천을 휘돌아 가는 꾸준함으로 당신이 함께하는 그 뭔가를 찾아가는 하찮은 한 마리의 피라미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위해, 그 뭔가를 위해, 실개천을 따라갈 하찮은 한 마리의 피라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날이 멋들어지는 당신을 사랑하는 행복한 마음입니다

이 순간 소망과 영혼의 불씨는 영혼의 메리리 됩니다

이웃집 아저씨 같은 청초한 미소는 부끄러움으로 피어 그 뭔가를 나에게 던져주고 가는 엄청나고 힘든 당신에게 비지런하게 흐르는 실개천처럼 휘돌아 가는 하찮은 피라미입니다

- 박여범 <나에게겐 엄청나고 힘든 일입니다> 전문-

시인은 그 뭔가를 위해, 꼭지, 꼭지 소중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어 행복하다. 멋진 그의 글에 반해버린 시인은 넘을 수 없는 당신에게도 힘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걸 멋들어지게 해내고 마는 그를 보면서 감사의 댓글을 전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다가가지 않고 나날이 멋들어지는 당신을 바라만 보는 아름다운 당신이다.

이 순간 영혼의 메리리 되어 함께 하는 소망과 영혼의 불씨를 지핀다. 이웃집 아저씨 같은 너털웃음으로 그 뭔가를 위해 달려가는 당신의 바지런함에 반해버린다. 그리고 변함없이 흐르는 실개천을 휘돌아 가는 꾸준함으로 당신이 함께하는 그 뭔가를 찾아가는 하찮은 한 마리의 피라미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위해, 그 뭔가를 위해, 실개천을 따라갈 하찮은 한 마리의 피라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사설
전북청년 허브센터 문 활짝

전북청년 허브센터가 개소되었다. 전북청조경제혁신센터 1층에 동지를 쓴 것이다. 본보가 엇그제 사설에서도 언급했거니와 전북도는 생각해야 할 것이 많다. 그중에서 우선 대상은 도내 청년인구 감소이다. 전국의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지역의 감소 폭이 제일 컸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 청년들의 입장을 챙겨 주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송하진 도지사와 임세은 청와대청년소통정책관과 관계자들이 청년들과 자리를 같이해 테이프 커팅을 했으므로 앞으로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기대이다.

전북도는 청년허브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분할해야 한다. 그동안 계속됐던 청년인구의 감소와 관련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자치부가 발간하는 ‘행정자치연보’의 내용을 보면 전북의 현실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두 해 전부터 그런 게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그랬던 것이다. 전북도는 전북청년 허브센터에 많은 역할을 주고 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러면 청년 허브 관계자들은 신이 나서 일할 터이다. 여기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 전북이 높아가고 있다는 진단은 결코 허튼 것이 아니다. 이제 전북은 고령자들의 고장이 돼버렸다.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이만 늘고 있으니 지역의 현실이 딱하다. 청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북도는 고민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다 애써 달라는 당부이다.

지금 절실한 것은 청사진 그리기 같은 미래 비전 제시가 아니다.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쳐 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전북도는 청년허브센터 개소에 힘입어 해결책을 하나씩 들춰 정기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 인구의 감소는 막을 길이 없다.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여러 번 공표했으므로 이제 정말로 전북도는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서울발 코로나 집단 감염상태 심각하다

서울발 코로나 집단 발병이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확진자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속출하고 있는 개뿤이다. 14일 오후 2시 기준 133명이라는 보도이다. 그래서 다시 코로나가 크게 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일고 있다. 이태원 클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방역 당국의 지적대로 2차 감염 3차 감염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 다시 언급하거니와 서울시는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모든 이들이 그동안 잘해왔었지만 허를 찔렀다. 그것은 정장에 찔린 것 같은 통증이여야 마땅하다. 서울시가 행정 명령을 내려 클럽 등 유흥업소의 영업 행위를 중지하도록 했지만 일은 이미 그르쳐진 후이다. 클럽에 출입한 젊은이들 중에는 허위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가 절반이 넘기에 추적이 매우 어렵게 됐다. 이번엔 확진자로 드러난 확진 강사의 경우 신분을 감추기 위해 계속 거짓말로 일관했는데 다른 이들도 직장에서 낙인 찍히는 게 두려워 거짓말을 하고 있을 지 모른다.

정부는 그동안 생활 속 거리두기를 당부했었다. 그대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랜 기간 숨 죽이면서 조심하면서 거리두기를 실천해왔다. 그 덕분에 코로나가 처음 진정되었다. 이제 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모양이라고 기대했는데 다시 집단 발병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환급연휴 기간과 어린이날에 다른데도 아니고 꼭 클럽에 갔어야 했을까. 확진환자의 속출로 학생들의 등교가 다시 연기되는 등 일상화가 무기한 연기되게 생겼는데 이 막대한 피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즐기면 된다는 식으로 처신하는 행위는 꾸짖음의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요즘 더욱 개탄스러운 것이 있다. 홍익대 일대가 코로나 확산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주점이나 컴퓨터 PC 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 거둬 강조하거니와 아직은 일상이 회복된 것은 아니다. 결코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클럽에 갔다가 확진 환자가 된 김재공중 보건과의 도민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모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독자제언

카카오톡 지인사칭 메신저 피싱 주의

얼마 전 민원인이 우리 경찰서에 방문하여 카카오톡으로 자기의 딸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돈을 보내 줬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다면서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는 다른 사람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로 국내에 널리 쓰이고 있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과 ‘피싱’의 합성어인 ‘메신저 피싱’에 해당한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딸을 사칭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가 고장나 수리를 맡겼고 컴퓨터로 접속하였다면서 온라인 문화 상품권을 구매하려는데 본인 인증이 안되니 얼마 명의로 대신 회원 가입하면 안될까” 라고 속여 카드와 신분증 사진을 카복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촬영하여 보냈다. 사기범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약 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이다. 메신저 피싱의 특징은 피해자들에게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큰일이 생길 듯 다급하게 말해 상대가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만일 전화 통화 요구시 휴대전화 고장이 낫거나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통화를 거부한다. 메신저 피싱은 예방이 최선이다. 카카오톡의 경우 누군가 해외에서 카복

을 할 때 그 사람 프로필 사진에 구분 표시가 나타난다면 해외에서 카복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의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이 100만원 미만의 금전을 요구할 때 또는 입금을 요구하는 통장 명의자가 다른 사람의 경우, 신분증과 신용카드의 사진을 요구하는 때 의심은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돈거래를 할 때 반드시 상대방과 통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원일 남원경찰서 수사지원팀경감

사외이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